

진로지도 시범학교 운영보고를 마치고

교사 / 홍 성 조



'91년 2월 어느날,
진로지도 시범학교란 생소한
이름의 과제가 본교에 주어지고 그에
따른 교원 연수가 하루 종일에 걸쳐
자유공원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인천
교육청 부설 교육 과학 연구원에서
있었다. 주제는 이렇게 정하고 선행
연구는..., 운영과제는..., 통계처리 및
검증과정은..., 보고서 작성은......

오전 4시간과 오후 3시간에 걸쳐
7시간 동안 진행된 연수를 받고 나니
옛날 학부시절 논문이란 무엇인가의
강의를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 같아
한편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론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하여 다음날 출근하자
마자 출장 복명을 하고 지시를 받은
다음 운영에 필요한 팀 구성에 들어
가서 다음 해인 지난 10월 15일 운영
결과 공개 발표회를 갖게된 것이다.
-이 글은 그 과정의 짙막한 요약과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
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분들이
사랑과 희생, 봉사로 기꺼이 도와주
셔서 이분들의 고마움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쓰게

된 것이다.

먼저 2년 동안 시행할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첫 작업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를 모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주제와 그에 따른 운영과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교육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많은 선행연구자료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일을 가장 열심히 그리고 완벽하게 주관하신 분이 김갑주 윤리주임과 박수미 선생님이었다. 특히 김갑주 윤리주임께서는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전공을 살려 운영 계획서의 집필과 교육학 용어의 적절한 사용에 많은 정열을 쏟으셨다.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고 연구원 허회숙 연구사님의 도움으로 계획서의 윤곽이 잡히면서부터 많은 자료의 분석과 배치를 꼼꼼히 구상하고 사고하며 빠진 내용을 찾아 보충하면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서의 틀을 만들고 가다듬는 일을 주관하신 분이 최경식 선생님이다. 최선생님의 철저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비판력으로 운영계

획서의 빈틈이 많이 채워졌으며 컴퓨터 편집솜씨 또한 일품이어서 우리의 수고를 많이 덜어주셨다.

기초조사자료인 연합고사 성적, 지능지수 분포, 학생의 희망직업조사 및 각종 앙케이트 조사와 결과분석은 한순영, 김명환, 임혜원, 최경식, 김갑주 선생님들께서 상담해 주셨다.

운영과제 I 인 “직업반 편성과 운영의 효율적 대책을 강구한다.”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조 교무주임은 직업계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두세번의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등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제반 운영과정을 담당하셨으며 특히 기능지도 강화를 위해 기능교과 배당에 관심을 가져 보충수업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직업반 운영의 전반적인 틀을 다듬어 주셨다.

기존의 상담실을 확장·운영하여 학생 개인 상담은 물론 진로교육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는 전반적인 기획에 홍성욱 교도주임이, 그리고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전시하는등 전반적인 환경정리는 전상희 선생님과 전태백 선생님, 그리고 3학년 10반 김기연

(31020), 유혜정(31021), 유정선(31037) 학생이었다. 이 세 학생은 모두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선생님들의 의도에 따라 많은 자료를 제작했는데, 며칠 동안을 밤늦게까지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고마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편, 진로지도 자료정리에는 장성렬 선생님, 게시자료 정리에는 박종렬, 전태백, 마기준, 최경식 선생님, 읽기자료 정리 및 제공에는 임혜원, 최경식, 마기준, 김갑주 선생님과 2학년 10반 학생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기자료 독후감을 써준 1521 박희정 학생, VTR 영상자료 준비와 방영에는 박종렬 선생님, 교직원 현직연수자료 정리에는 황도기, 최경식, 마기준, 김갑주 선생님과 2학년 10반 학생들이 수고해 주셨고, 각종자료의 붓글씨를 위해 장지 손가락에 먹물이 굳어 박히도록 며칠을 매직과 물감 그리고 붓과 씨름하며 수고해 주신 김명환 선생님과 박종렬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로 운영과제 I 은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었다.

운영과제 II는 “자신의 이해와 건전

한 직업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적 활동을 강구한다”인데 이의 실천을 위해 진로 심성 훈련을 김정애 선생님과 상담 자원봉사자 네분, 진로의 시간 운영을 지도해 주신 김명환, 임혜원, 백봉주, 홍성욱 선생님과 2·3학년 직업반 학생 전원, 활동부를 정리해 주신 박종렬 선생님, 진로의 날 운영을 기획하고 섭외하여 견학의 뒷바라지를 다해주신 전태백 선생님과 홍성욱, 백봉주 두 담임선생님, 그리고 견학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고 차량편과 점심을 대접해 주신 제일엔지니어링, 인천세관, 롯데제과 관계자 여러분, 교과관련 직업지도요소를 추출하여 기꺼이 지도안을 작성하시고 수업에 반영하신 직업반 수업담당교사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운영과제 II는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운영과제 III은 “기초적 취업 실무 기능 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을 실시한다”인데 위탁교육 제반 사항을 관장하신 홍성욱, 전태백 선생님, 교내 실기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협조해주신 홍성욱, 전태백, 마기준 선생님, 직업교육 기자재 확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교장, 교감 선생님과 김정수 서무과장님, 사무능력 향상을 위한 목표급수를 정해놓고 지도에 열중한신전태백 선생님의 협조로 운영과제Ⅲ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신 결과 직업반 운영의 기틀이 잡히고 학생에게는 건전한 직업관과 진로의식이 형성되었으며, 기초적인 취업실무기능이 향상되었고, 교직원들의 직업반 지도능력도 향상되었다.

이제 보고회를 앞두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해 보고자 한다.

심성수련 독후감을 일일이 읽어보고 정리하여 주신 김수정 선생님, 현장견학 소감문을 정리하고 교정하여 주신 배명철 선생님, 읽기자료 독후감을 정리하고 교정하여 주신 이만기 선생님, 각종 설문지의 자료정리를 도와주신 황도기, 김영식, 손문, 정승호 선생님, 공개수업을 담당하셨던 백봉주, 전태백, 마기준 선생님, 취업지도대장의 전산화를 위해 기획하고 구상하여 제작하신 최경식 선생님과 협조하여 준 2학년 10반 학생들, VTR 촬영을 기꺼이 도맡아 수고하신

이재환 새마을 주임 선생님, 운영 보고서를 8차에 걸쳐 수정·보완하고 입력하여 편집하신 최경식, 김갑주 선생님, 그때마다 교정을 맡아 보신 김명환 선생님, 늦은 밤에도 잠재우던 갓난아기 ‘다비’를 뒤로 하고 달려와 자정까지 원고 교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만기 선생님, 보고회장을 꾸미는데 플랭카드를 걸고 의자를 옮겨 정리하며 커튼을 두세번씩 고쳐달고 모든 잡일을 도맡으셨던 김갑주, 최경식 선생님과 1학년 5반 학생들,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하신 정승호 선생님, 보고회 등록부를 작성하고 당일 아침까지 최종 마무리로 분주하셨던 최경식 선생님, 정문앞 플랭카드를 걸고 행문관앞 잔디밭에 음료 준비를 위해 파라솔을 펴주셨던 김정수 서무과장님, 이정수 주임님, 보고회장 및 수업공개 교실 안내도를 제작하느라 일요일 한나절을 고스란히 바친 전상희 선생님, 보고회장의 재털이, 담배, 꽃꽂이, 테이블보를 직접 챙겨 주신 서무과 김경애, 서연성 씨, 보고회 참석자들을 위해 오전부터 저녁때까지 음료봉사를 해주신 본교 어머니회 회장단 여러분. 물을

끓여 주신 식당 아주머니들, 보고회장
 장과 협의회장의 사진과 Vidio촬영을
 하신 박사장님과 이재환 새마을주임
 선생님, 보고회 등록을 맡아보셨던
 김신혜, 박수미, 윤병철 선생님, 보고
 회 중간휴식 때 부족한 커피믹스를
 사러 100m달리기를 하셨던 윤병철
 선생님과 보고회에서 운영보고를 맡
 았던 김갑주 윤리주임 선생님, 보고
 회장 밖의 제반책임을 맡고 역할을
 담당하신 최경식 선생님, 그리고 시
 범학교 1년차부터 보고회 당일까지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로 우리 운영
 위원들을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며
 어려운 주문 사항을 모두 해결해 주
 신 교장, 교감 선생님. 딱딱한 뒷자
 리에서 조용히 보고회를 지켜보셨던
 문용호 이사장님과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낸 시범학교 2년간의
 운영은 그 결과의 성공 여부를 떠나
 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과제가 주
 어진다 하더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는 점에
 서 이번 보고회의 성과를 찾을 수 있
 지 않을까 한다.



이 외에 같이 도움을 주지 못해 항
 상 미안해 하시던 여러 선생님들의
 얼굴을 기억하여 떠올리면서도 지면
 에 옮기지 못했음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그 격려했던 도표 논
 쟁(?)과 강릉 경포대의 백사장과 푸
 른 물, 내장산의 단풍 든 아름다운
 경치를 머리속에 떠올리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이에게
 감사를! 文苑